

가을야구 희비... 삼성·kt '안착', 롯데·NC '불안'



삼성의 8회초 1사 대타로 출전한 이성규가 6월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상대 투수 박명근의 공을 받아치는 순간 방향이 바뀌고 있다. 연합뉴스

6위 롯데·7위 NC, 트래직 넘버 3
롯데, 남은 6경기 상위팀 대결 험난
3위 굳어진 SSG는 한숨 돌려
디펜딩 챔피언 KIA는 사실상 좌절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秋分)이 지나면서, 프로야구 가을야구 티켓을 놓고 벌어졌던 치열한 전쟁의 승자 윤곽도 조금씩 드러난다.
SSG 랜더스는 3위를 굳혀가고, 4위 삼성 라이온즈와 5위 kt wiz는 가을야구 진출이 유력하다.
6위 롯데 자이언츠와 7위 NC 다이노스는 점차 어려워지는 분위기고, 8위



산 베어스, KIA, 한화 이글스, 롯데, 키움 히어로즈, NC(각 1경기)다.
4위 삼성과 반 게임 차로 뒤처진 5위 kt의 포스트시즌 매직 넘버는 4로 같다.
경기 일정만 보면 삼성은 롯데와 키움, KIA 등 하위권 팀과 각각 2경기씩 남겨 뒤 다소 유리하고, kt는 SSG(2경기), 한화, NC, KIA(각 1경기)를 만나야 해 조금은 부담스럽다.
다만 kt는 순위 경쟁 팀인 SSG와 2차례 맞대결이 남아 있어 이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3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6위부터는 매직 넘버가 아니라 가을야구 탈락을 의미하는 '트래직 넘버'를 쉼 쳐 지다.
6위 롯데와 7위 NC의 트래직 넘버는 3이다. 남은 6경기 일정도 험난하다. 삼성(2경기), LG 트윈스, SSG, 한화, 두산(각 1경기) 등 상위권 팀을 줄줄이 만난다.

KIA 타이거즈는 사실상 산술적인 가능성만 남았다.
3-4위 팀인 SSG, 삼성, kt는 23일 경기에서 나란히 승전고를 울렸다.
정규시즌 8경기를 남긴 SSG와 삼성의 격차는 2경기다. SSG의 포스트시즌 '매직 넘버'는 3으로 줄었고, 3위 확정을 위한 매직 넘버는 5다.
정규시즌을 3위와 4위, 5위로 마치는 건 큰 차이가 있다.
3위는 준플레이오프(5전 3승제)에 직행하지만, 4위와 5위 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야 한다.
SSG의 잔여 경기 상대는 kt(2경기), 두

롯데는 남은 6경기에서 3승3패만 해도 포스트시즌 탈락이 확정이다.
삼성과 2경기는 반드시 승리하고, 최소 5승패를 거둔 뒤 삼성과 kt가 부진할길 기대해야 한다.
롯데보다 1경기를 덜 치른 7위 NC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7경기에서 전승해야 자격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기대할 만하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에서 8위로 추락한 KIA는 사실상 가을야구가 좌절됐다.
트래직 넘버 1로 남은 7경기 가운데 한번만 패하거나 5위 팀인 kt가 한 번만 승리해도 탈락이 확정된다.



한국 23세 이하 야구 대표팀이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B조 오프닝 라운드 2차전에서 대만에 10점 차 홈런게임 패배를 당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만에 0-10 박살 한국 야구대표팀 콜드패로 짐 싸



한국이 제31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대만에 충격적인 홈런게임 패배를 당했다.
한국은 23일 중국 푸젠성 핑탄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예선 라운드 2차전 대만과 경기에서 0-10, 7회 홈런게임으로 졌다.
김종윤(LG 트윈스)을 선발로 내보낸 우리나라는 1회 2사 1, 3루 위기에서 폭투로 먼저 한 점을 내줬다.
이어 2사 2루에서 2루타를 맞아 추가 실점했으며 바뀐 투수 김준원(NC 다이노스), 박정민(한일장신대)도 안타, 볼넷을 내주며 계속 흔들려 1회에만 6점을 내줬다.
5회와 6회에도 1점씩 실점한 우리나라는 7회 대만 전민스에게 투런 홈런을 맞고 홈런게임으로 완패했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 대회 정상 복귀를 노리는 우리나라는 24일 팔레스타인과 예선 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음바페 2분 새 6·7호골... 레알 마드리드 개막 6연승 '축포'

3경기 연속 득점 힘입어 승점 18... 라리가 1위 굳건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사진)의 2분 간격 연속골을 앞세운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레반테를 꺾고 정규리그 개막 6연승 행진을 벌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24일(한국 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시우다드 데 발렌시아에서 열린 레반테와의 2025-2026 라리가 6라운드 원정에서 4-1 압승을 거뒀다.
개막 6연승을 달린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18을 기록하며 1위를 질주 중이며, 2위

FC 바르셀로나, 3위 비야레알과 여유 있게 승점 5 차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레반테는 1승 1무 3패(승점 4)로 16위에 그쳤다.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부터 강하게 레반테를 몰아치며 전반 28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전반 21분과 23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앞을 가로막고 있던 두 수비수의 빈틈을 정확히 노린 오른발 슈팅으로 공을 골대 왼쪽 구석 상단에 꽂아 넣었다.
그로부터 10분 뒤에는 18세 공격수 프랑크 마스투포노가 추가골을 터트렸다.

후반전부터는 음바페의 몫이었다. 후반 19분 페널티 킥을 얻어낸 음바페는 직접 키커로 나서 과감하게 골문 중앙을 겨냥해 세 번째 골을 넣었다.
그는 득점한 지 불과 2분에 다시 골 맛을 봤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받은 패스를 곧바로 몰고 들어가 골키퍼를 제친 뒤 빈 골문에 마무리 슈팅을 꽂았다.
음바페는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리그 6, 7호 골을 장식했다.



AFP=연합뉴스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현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최 광 지음

The BUCK STOPS here!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쿠원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피플

화제의 신간!!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현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쿠원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

북앤피플 (02-2277-0220)